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雄飛라는 휘호를 받은 KTX-1기본훈련기

### KTX-1 "雄飛"호로 명명식 거행 99년부터 양산 돌입

KTX-1을 독자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우중공업은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雄飛라는 휘호를 받아 11월 28일 오후 김홍래 공군참모총장과 윤영석 대우중공업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명식을 가졌다.

군용 항공무기체계의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비롯하여 국내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룬 이 항공기는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였고, 우수한 이착륙, 상승, 선회성능 및 곡예비행특성, 지상 및 공중에서의 저소음 특성, 낮은 연료 소모율 등 장점을 갖추었다.

동 KTX-1 기본훈련기는 '91년12월12일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지금까지 약 380회 이상의 각종 비행시험 분석결과 세계에서 운용중인 동급의 외국 항공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종합 평가되었다.

이번에 명명된 웁비호는

탐색시제기 2기의 결함을 보완하고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대형 아음속 풍동시험과 1천여회의 수직풍동시험 및 구조강도 확인시험 등 각종 지상시험과 400회의 시험비행을 통하여 성능 및 안전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이 항공기는 개념설계 단계부터 설계, 제작, 비행시험, 인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수행 방법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총체적 사업관리와 설계, 시험평가를 주관하고 최종조립업체인 대우중공업이 주역, 미익의 기체 부품과 세부계통을 제작하였으며 대한항공이 중앙동체와 후방동체를, 삼성항공이 전방동체 및 엔진관련 계통을, LG정밀이 항공전자계통

을 담당해 총 8개 업체가 업무를 분담하고, 요소기술 부분은 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 부설연구소가 참여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산·학·연의 업무 분담과 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기본훈련기 웁비호의 향후 개발일정은 1996년 중에 선행시제기 1기(4호기)에 대한 각종 비행시



'웁비' 호에 시승한 김홍래 공군참모총장

협을 수행하고 97-98년 2년간은 선행시제기의 문제점 및 성능을 대폭 개선한 실용시제기(5호기)를 제작하여 실용 시행시험을 거친 다음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등 기본훈련기의 부품국산화 계획은 체계개발과 양산 시로 구분하여 각각 74%와 80%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산화 대상품목의 선정은 성능 및 품질수준의 충족 여부를 최 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며, 양산시에는 수입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제시가 가능한 국산품만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국산화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핵심 부품으로는 각각장치, 유압장치, 출력조절장치와 외부연료탱크 등이며 엔진은 2000년 양산 배치 이후 국산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 심포지엄 개최 한국기계연구원 공인시험기관 지정

기계연구원(KIMM)창원분원은 12월 15일(金) 창원에서 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항공기 소재부품 국내 공인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KFP 사업의 주관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국내 항공기 소재부품업체 6개사(한국로스트악스, 천지산업, 삼선공업, 삼우금속, 서울엔지니어링, 대신금속)가 항공기 소재부품의 생산에 관한 인증을 획득한 것과 KIMM이 항공기소재 공인시험 대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기계연구원은 이번에 공인시험 대행기관 선정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록히드사에 납품하는 각종 소재부품에 대한 공인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과거

외국시험기관에 의뢰함에 따른 업체들의 불편이 감소될 것이며 아직 미비한 국내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 체제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품질인증을 비롯한 공인시험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국등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국내업체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 〈주제발표 내용〉

- 항공소재부품업체의 록히드생산인증 획득경위와 의의 (국방부 조달본부 김갑석과장)
- 항공기 소재부품 품질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통산부 항공우주산업과 이원걸 과장)
- 국내 항공기 부품 품질인증의 현황과 발전방향 (항공우주연구소 이종희 부장)
- 국내 항공기 소재 공인시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기계연구원 이용태 부장)
- 미국의 품질인증체제와 사례연구 (록히드사 James D. Gooksbay)
- 항공기소재 생산인증 획득사례연구 (한국로스트악스공업 장세풍 사장)
- 중형항공기의 품질인증 체제 구축방안 연구 (대우중공업 전규태 이사)



국내 업체가 항공기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off-set정책을 추진한 조달본부 김갑석과장이 감사패를 받고있다.



중형항공기사업조합 제1차 정기총회

## 중형항공기사업조합 제1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화이바 신규조합원 가입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 제1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8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주관회사인 삼성항공 이대원 부회장을 비롯하여 15개 업체의 대표자 45명이 참석한 동 총회에서는 부의된 4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5건의 보고사항이 발표되었다.(관련기사 54page)

## 현대전자 통신위성사업 본격 진출

현대전자가 통신위성 제작사업에 본격 진출, 앞으로 7-8년동안 12기의 위성을 직접 제작하여 발사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현대전자는 미국 로탈사와 공동으로 '글로벌스타'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위성 12기를 직접 제작하여 발사하기로 양사간에 합의하고 전문가 교육 및 장비 구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가 로탈사와 최근 합의한 내용은 글로벌스타 서비스를 위한 48기의 위성은 로탈사가 발사하고 이들

위성의 수명이 다한 7-8년 후에 교체될 통신위성의 25%에 해당하는 12기를 현대전자가 제작한다는 것이다. 당초 로탈사와 현대전자는 1차발사위성중 예비위성 1기를 현대전자가 제작하기로 했으나 제작기간이 촉박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는 저궤도 통신위성 제작을 위해 위성사업단 소속 엔지니어를 미국 로탈사에 파견, 기술을 이전받고 있으며 통신위성 제작 기술도입신고서를 정부

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 러시아 수호이설계국 경매 정부 재정부담 감축위해

러시아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군수산업체에 대한 국가 보유분의 주식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호이(Sukhoi)설계국의 25%, 울란 우데(Ulan Ude)사의 13%, 프로그레스(Progress)사의 25% 주식매각을 시작으로 개시할 동 경매는 LFS(Loans-For-Sales)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재 수호이 설계국은 러시아 국방부의 주문이 생산량의 2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종업원의 수가 반수가량 줄어들었으며 러시아 공군은 내년에 SU-27기의 추가구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호이는 첨단 항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SU-27 개량형인 SU-32FN과 SU-35의 시제기를 개발했고 중국과의 SU-27계약에서 7~10%는 수호이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프로그레스(러 국동 아르세네프 소재)사는 전투용 헬기 Mi-24를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Mi-24의 생산을

중단하고 Mi-50 헬기 생산체제로 개조한 바 있다. 또, Mi-34 민수용 경헬기를 소량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저조로 약 1만여명의 종사원들이 세탁기 및 기타 가구 생산에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가들은 수호이 경매선정은 러시아 정부가 동 설계국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타 항공산업체로의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나니코-플러스 증개사의 주식 분석가 콘스탄틴 멜리코프는 현재 러시아 항공사의 주식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재정파탄에 처해 있어 막대한 자금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자들만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보잉MDC합병에 에어버스사 고심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합병설이 무성한 가운데 에어버스(Airbus)사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사는 동 합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컨소시엄의 재편성을 구상중에 있으며 이는 독일과 영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 체제의 재편성을 주저하고 있는 프랑스에 의해 협상이 보류되고 있으나 프랑스도 컨소시엄의 재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잉사와 MDC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보잉사의 민간분문과 MDC의 군수분문을 주로하여 합병을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헬리콥터부문에는 보잉사와 MDC사의 합병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초부터 보잉사는 벨(Bell)사와의 합병협상을 시작으로 헬기부문의 표준화를 시도해왔다. 합병이 가장 어려운 부문이 우주 분야인데 특히 알파(Alpha)우주정거장 건설에 대해서는 보잉사는 주계약자이고 MDC는 주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알파 우주정거장 건설 난항

미 항공우주국이 알파(Alpha)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그램 중 미르(Mir) 1호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NASA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예정에서 벗어난 계획은 원하지 않으며 과도한 비용의 지출이나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우주정거장을 재설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측 제안은 알파계획에 맞는 새로운 하드웨어의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기 힘들어서 이미 1억2천만달러를 지불한 이상, 추가자금의 지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알파계획에 미르1호를 사용하여 재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미르1호의 이용은 알파계획에서 제작할 우주정거장보다 더 빨리 운영될 수 있는 우주정거장의 건설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관계자는 미르1호는 2002년까지 궤도상에서 운용될 것이며 '97년에 마무리될 Shuttle Mir mission(SMM)에서 호스트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르1호는 '86년에 발사한 코어 모듈(Core Modu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스펙터 모듈(Spektr Module)이 발사되었으며 금년 3월경에 프리로다 모듈(Priroda Module)이 우주정거장에 결합될 예정이다. 러시아측은 이 새로운 모듈이 알파 우주정거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능한 해결책은 미르호에 사용되는 스펙터 모듈과 프리로다 모듈을 알파에 결합하자는 것인데 NASA에서도 이는 재설계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NASA측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러시아는 미르1호의 운영을 계속할 것이어서 알파 계획의 지연이나 애로점, 리스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